"숙의민주제, 불교 공동체에 답 있다"

윤세원 교수,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서 주장

촛불 이후 1년,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정권이 바뀌었고 그로 인한 여러 제도적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 1년의 변화에 한국사회와 불교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겨울호(통권 72호) 특집으로 '촛불 이후, 한국사회와 불교'를 다뤘다. 정치 · 경제 · 윤리 등 분야에서 촛불 이후 변화와 불교적 대안적 모색이 전문 학자들을 통해 제시됐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윤세원 인천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대안 민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전통적 맹아가 불교 전통 승가 공동체에 있음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윤 교수는 '민주주의의 당면과제와 불교의 역할' 주제 논문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91년 내놓은 〈역사의 종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체제 우월 경쟁의 최종 승자라고 했지만, 2014년 저서 〈정치적 질서와 정치적 쇠퇴〉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었음을 주장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보았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서 일어난 촛불 혁명 사이에는 내적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 민주주의는 주권 행사의 정치적 의례인 선거가 주권자를 주권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 당면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촛불혁명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는 선거에 내재된 통치자 선정 방식의 허술함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해 겨울 광장의 빛낸 촛불들은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한 국정농단 세력과 그들만으로 형성된 카르텔을 해체 혹은 견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가자고 하는 요구"였다는 게 윤 교수의 평가이다.


지난해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도철 스님과 참여 시민이 촛불을 나누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촛불 後 사회와 불교' 주제서
선거 통한 대의민주주의 한계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부상
구성원 논의로 쟁점 해결하는
숙의민주제, 승가 공동체 유사

윤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시된 '숙의민주주의'를 주목했다. 숙의민주주의는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공개적인 논증과 토론이 이뤄지고 그 결과를 국가 권력의 잠정적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민주적 통치 방식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신고리 원전 5 · 6호기 향배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선 공사를 중지시키고 재개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었다. 결국 시민배심원들은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정부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윤 교수는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모두와 양립이 가능하다"면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은 쇠퇴 일로의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재생시킬 수 있는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숙의민주주의가 불교 승가 공동체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본래 승가는 주인 없이 전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완전한 자치 공동체를 지향했고, 의사 결정도 소통과 화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불교적 공동체 생활 원칙과 지혜들은 한국불교의 전통 속에 아직까지 살아있다"면서 "구성원 사이 철저한 평등과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하는 숙의민주주의는 불교 전통 속에서 너무나 오래 전부터 실천돼 오고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 맹아였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 영산전 불상 조성연대 새로 확인

최선일 위원, 2일 한국미술사학회서 발표

영산전 삼존불상 · 나한상 연대
1715 · 1681년으로 각각 확인
기존 1821년보다 상향돼야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영산전에 봉안된 목조삼존불상과 나한상의 조성 연대가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불상들의 조성 시기가 상향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12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선운사 영산전 봉안 불상의 조성 시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위원은 '고창 선운사 영산전 불상 연구'에서 기존 도록과 보고서에는 영산전이 1821년 제작됐다고 명시돼 있지만 문헌들을 다시 확인한 결과 불상들은 최대 150년 이상 상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영산전은 기존에 건립된 2층으로 된 각황전이 기울자 보수해 만들어진 것으로, 봉안된 불상들은 기존의 각황전에 봉안된 것을 다시 가져온 것으로 봤다.

목조삼존불상의 경우, '1713년(숙종 39)에 태학(太學)과 태산(太山)이 장륙화신불(丈六化身佛)을 봉안하고자 2층으로 된 각황전을 건립했다', '1715년(강희54) 여름에 장륙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에 따라 "각황전을 영산전으로 만들면서 각황전 삼존상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최 위원의 주장이다.

나한상에 대해서 최 위원은 "'1677년(강희16) 봄에 화주 유선(惟善), 별좌 천호(天浩) 등이 나한전을 창건한 후, 1681년(강희20) 봄에 나한상을 봉안했다'고 기록에 명시돼 있다"면서 "현재 영산전 나한상은 원래 나한전에 봉안됐던 것을 1821년에 영산전이 건립되면서 이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산전 내에 봉안된 불상은 기존에 알려진 1821년이 아니라 1715년에 목조삼존불상이, 1681년에 나한상이 각각 조성됐다가 현 위치로 이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상 조성 불모(佛母)들에 대한 대략적 추론도 내놨다. 최 위원은 목조삼존불상은 18세기 전반에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조각승 진열, 하천, 금문을 꼽았으며, 나한상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색난, 단응, 마일, 금문, 승호, 경탄 중 하나로 봤다. 신성민 기자

경론 번역서 사용된 한글술어 조명하다

티베트대장경역경원, 12월 1일 학술세미나



경론 번역에서 사용되는 한글 술어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12월 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경론 번역에 사용된 한글술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범어본 경론의 번역에 사용된 한글술어'를 주제로 발표한 심재관 강릉대 교수는 전재성의 〈십지경-오리지널 화엄경〉에 사용된 한글 용어에 대해 논의했다. 심 교수는 "전재성의 〈십지경〉은 최소 한글을 사용하는 번역자가 '번역' 그 자체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불교용어의 한글화'에 대해 자의식적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적 어휘를 논문이나 번역 속에 뒤섞어 쓸 경우, 순간적 성취감이나 신선함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세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글 술어에 대한 역자의 지나친 애정과 정성이 자칫 독자들을 잃거나 독해를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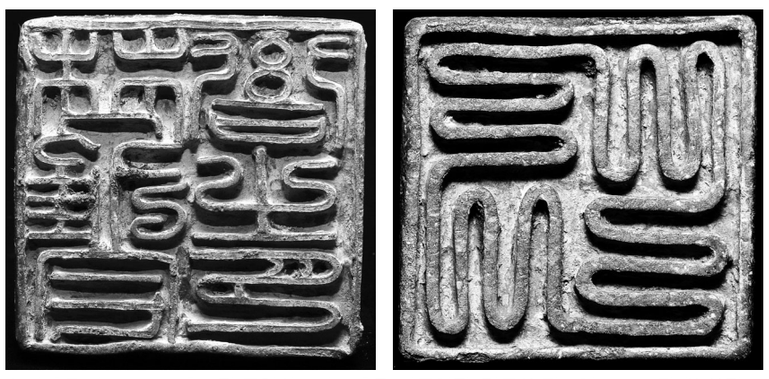
임승택 경북대 교수는 '〈빠띠삼바다 막가 역주〉에 사용된 한글술어'에 대해 발표했다. 임승택 교수는 번역에 사용된 대표적인 한글술어 10개를 사례로 추려 소개하며 "'형성력'이라는 번역은 십이연기의 두 번째 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것은 무명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인 동시에 다시 의식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기능하는데 즉, 무명과 의식을 잇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 진옥 스님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에 좀 더 가깝고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가 역경원의 숙제"라며 "오역으로 부처님 말씀이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전문적인 번역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흥전리사지서 통일신라 청동 승관인 발견

(재)불교문화재연구소 5일 발굴 현장 설명회

당시 승단서 사용했던 官印
국가-승단 관계 확인 사료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추정 청동인장. 명문은 전서체로 쓰여진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와 승단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승단에서 사용한 관인(官印)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삼척시청(시장 김양호)는 12월 5일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지역에서 발굴 설명회를 열고 발굴을 통해 확인된 청동 승관인(僧官印)을 공개했다.

'중요 폐사지 발굴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발굴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추정 청동 인장 2과가 출토됐으며, 12점의 대호(大壺, 항아리)를 묻었던 장독 보관시설이 확인됐다.

출토된 청동인장 2과는 모두 완전한 형태이며, 이 중 하나는 청동인주함에 인장이 담긴 채 출토됐다. 보존처리 중인 청동인장은 2과 모두 정사각형(5.1㎝)으로 윗면에 끈을 매달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의 형태로 제작됐다. 2과의 청동인장에는 6자의 전서체와 기하문이 각각 새겨져 있다.

2과 중 한 점의 인문(印文)은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으로 판독되며, 서체는 당나라 관인(官印)과 유사한 구첩전(九疊篆, 글자 획을 여러 번 구부려서 쓴 전서체)의 초기형태이다. 이 인장은 통일신라 시대 승단에서 사용한 승관인으로 판단된다는 게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설명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 청동인장은 경주 황룡사지 출토품과 손잡이와 명문 서체 등에서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가 매우 흡사하다"면서 "청동인장은 한국 인장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범웅관아'라는 명문은 통일신라 시대 승단 조직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인장에는 '만(卍)' 자상으로 선을 연결한 문양이 확인됐다. 〈삼국사기〉 권7(신라본기 제7, 문무왕 하)에는 통일신라 시대 문무왕이 모든 관인은 국가가 주조하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려사〉 권 6(세가(世家) 6, 정종 원년 10월)에도 고려 정종 때에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지방 주군(州郡)이 사용하는 승관인을 거둘 것을 주청하는 기사가 있어 국가에 의해 관인이 관리됐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척시청은 흥전리사지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 ·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 발굴조사 성과를 집성한 학술대회를 내년 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29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